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제206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시아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사진=편집국 사진부 변영욱

2017년도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렸다. 사진은 25일 동아일보 연차보고 모습.

## 2017년엔 확 다르게... 동아 로드맵 세웠다

### 동아미디어그룹 연차보고 진행... 3대 경영방침 공유 편집국 “대선관련 뉴스 선도”... 채널A “킬러콘텐츠 발굴”

동아미디어그룹의 ‘2017년 연차보고’가 1월 23-25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국·실·본부장들과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연차보고에서 △A-Pride 콘텐츠 확산 △‘경계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동아미디어그룹이라는 올해 3대 경영방침의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 우리의 자긍심을 심은 ‘A-Pride 콘텐츠’ 확산

동아일보 편집국은 기사와 지면의 변화를 예고했다.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기사를 우선 배치하고 기사의 형식도 기존의 육하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 또 올해 대선이 예정된 만큼 채널A와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꼼꼼히 검증하고,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팩트 체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

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본부는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대혁신을 강조했다. 자랑스러운 콘텐츠를 위해서라면 타이틀, 앵커, 패널, 스튜디오, 포맷 등 개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다.

채널A 제작본부는 2049 ‘킬러’ 예능 콘텐츠를 반드시 만들어 채널A의 이미지를 보다 젊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로 신설된 채널A B&C와 뉴스비전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서 미디어텍과 함께 서울국제마라톤대회와 대선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A 프로그램의 고품질 영상, CG 등을 책임진다.

채널A 심의실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보도 감시 TF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도

지면의 품격 향상을 위해 ‘일일 심의기능’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경계의 파괴’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동아미디어그룹이 갖고 있는 탄탄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한다.

동아닷컴은 부동산, 여행 등을 온라인·모바일과 연계하고, 다양한 스타트업과 제휴를 모색할 방침이다. 동아사이언스는 기존 구독자들의 과학 체험 기회를 넓히고 SW 융합교육을 시작하는 등 동아시아언스의 팬 층을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이지에듀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입시전문출판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온라인에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 생산을 확대한다. 스포츠동아도 스포츠를 소재로 한 사업들을 확장한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수익성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들도 소개했다. 마케팅 본부는 채널A 프로그램 ‘먹거리X파일’의 차별화된 브랜드 ‘착한식당’들을 한 데 모은 ‘착한식당촌’을 연내 선보인다. 디유넷은 지난해 체코 맥주를 유통시킨 데 이어 올해는 동유럽 탄산수를 국

내에 소개할 예정이다.

문화사업본부는 클래식 위주의 콩쿠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요가 많은 실용음악콩쿠르를 신설하고, 서울국제마라톤 등 기존 행사들은 보다 젊고 즐거운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동아미디어그룹

논설위원실은 차세대 칼럼니스트 육성을 위해 편집국 기자들에게 칼럼 조연을 하고 필요할 경우 칼럼이나 횡설수설의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콘텐츠기획본부도 각 전문기자별 전문성과 브랜드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형 현안 발생 시 젊은 기자들과 공동 취재팀을 꾸려 기사의 전문성과 심층성, 현장성을 모두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AD본부는 매달 ‘작은 실패&큰 성공 사례 발표회’를 열어 조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경영지원국은 직원들의 관심사인 자녀 교육을 위해 육아와 입시지도 등의 강연을 여는 등 ‘자녀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 “청년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 청년일자리 이슈 제기 및 대선주자 공약 점검 당부...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와 ‘혁신’ 강조

“동아미디어그룹이 올 한 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1월 23-25일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2017년 연차보고에서 동아미디어그룹 전체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중요하며,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동아미디어그룹의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청년드림센터 뿐만 아니라 편집국, 출판국, 보도본부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부서들이 청년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대선주자들의 청년일자리 공약에 대한 엄정한 검증도 부탁했다. 표심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공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한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랑스러운 ‘A-Pride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과감한 ‘경계의 파괴’도 제안했다. 김 사장은 “이제는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며 “자유로운 옴이나 형식 파괴에서 정보를 얻는데 익숙해진 만큼 모바일이나 디지털에서는 다양한 파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나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뭔가를 배워 나가고 발전해 나간다면 그



사 장

것이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 2017년 동아미디어그룹, 변화와 혁신으로...

동아미디어그룹 각 조직들이 2017년 신년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변화’와 ‘혁신’. 동아일보는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 등 신년기획으로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통일 준비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사회적 공유가치 실현 노력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동아미디어그룹 화이팅!

# 주성하 기자의 기사... ‘이제 만나러 갑니다’... 통일이슈를 주도하는 동아 콘텐츠

### 태영호 전 북한 공사 “탈북자 프로그램 보고 한국행 결심” 동아일보, 통일 대비 ‘준비해야 하나된다’ 기획 돋보여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라든가... 탈북자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은 100% 다 봅니다. 가서 어떻게 사는가...” “주성하 기자가 한국에서 쓴 기사들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때는 선생님의 방조(협력·결여에서 도와준다는 뜻)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망명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인들과 만난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장. 태전 공사는 채널A의 탈북자 프로그램 ‘이만갑’과 동아일보 탈북기자 주성하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래 전부터 통일 이슈를 주도해 온 동아미디어그룹 콘텐츠의 저력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탈북자 주인공인 최초의 예능 ‘이만갑’**

공개 활동을 시작한 태전 공사가 출연한 첫 예능 프로그램은 1월 1일 방영된 ‘이만갑’이었다. 탈북 방송인 신은하 씨와의 인터뷰로 진행된 방송에서 태전 공사는 “영국에서 유튜브로 ‘이만갑’을 다 봤다. 처음엔 ‘이만갑’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는 말로 방송을 시작했다. 또 탈북자로 공개 활동을 하는 이만갑 출연진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며 “(‘이만갑’처럼)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어떻게 살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라고 말할 땐 출연진들이 “와-”하고 감탄사를 내뿜기도 했다. 이날 시청률은 4.081%(닐슨코리아, 수도권)로 동시간대 중편 1위, 이어 방송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를 찾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가운데)가 북한 출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왼쪽)와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 중인 탈북 방송인 신은하 씨와 손을 잡은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된 8일 방송분도 4.388%로 동시간대 중편 1위를 기록했다.

채널A가 개국과 동시에 선보인 ‘이만갑’은 탈북자가 주인공으로 나선 최초의 예능 프로그램이자 중편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친근하면서도 생생하게 소개하는 ‘이만갑’은 해외 언론에서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BBC, 일본 NHK 등에 이어 최근엔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의 매거진M이 4개 면에 걸쳐 ‘이만갑’을 소개했다.

르몽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우는 이 프로그램은 시작한 지 5년이 흘러도 시청자들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줄임말 ‘이만갑’은 히트

단어가 됐다”고 소개했다.

2015년 3월부터 시작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잘살아보세’는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탈북 여성들과 남한 남성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탈북민 인권에도 관심... 통일 이후 대비**

또 2013년 일곱 살 꽃제비 신혁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 15명의 탈북 과정을 동행 취재한 ‘특별취재 탈북’은 2014년 제47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고상인 플래티넘을 수상했고, 일본 니혼TV에서도 방영돼 11.8%의 높은 시청률을 올리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아일보는 2013년부터 ‘준비해야 하

나 된다’란 제목으로 통일 관련 기획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통일 이슈를 선도하고 있다. 탈북기자인 주성하 기자는 2008년부터 동아닷컴 블로그인 저널로그에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코너를 통해 북한 관련 글을 올리며 주목 받고 있다.

탈북 기자의 시선을 담은 글은 물론 북한의 최신 소식들이 공유되는 점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탈북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로 꼽힌다. 현재 누적 방문자 수는 약 7600만 명, 매달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수준으로 이 중 10% 이상이 미국과 중국 북한 등 해외 170여 개국에서 방문하고 있다.

제작본부 제작3팀 공효순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르몽드 매거진에 소개된 ‘이만갑’ 기사.

## “제복의 자긍심 고취, 동아·채널A가 앞장선다”

### ‘제6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11명 선정 천안함 폭침 사건 등 계기로 義人 존경 사회 조성에 나서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국가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영예로운 제복상’의 6번째 수상자 11명이 선정됐다.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지난 10여 년 간 6·25 전쟁 전사·실종자 유해 3000여 구를 발굴한 주경배 대령(육군 제1군단 인사참모처)이

대상을 수상했다. 1년 7개월간 범인을 쫓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정창호 경감(제복상 수상)은 “장애가 형사의 꿈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을 제복상이 보여줬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기념사에서 “수상자들의 업적은 제복만큼이나 빛나는 열정과 헌신의 결과”라며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헌신을 늘 가슴에 새

기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동아일보와 채널A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제정됐다. 열악한 근무 여건과 각박한 사회 평가 속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을 치하하고,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다. 수상자는 매년 국방부와 경찰청,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의 추천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한다.

2012년 처음 열린 시상식에선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 등 선원 21명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의 주역 김성호 소령(당시 최영함 전투체계관)이 대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영예로운 제복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복 공무원은 모두 61명이다. 지난해부터는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선 제복을 입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아미디어그룹이 주도하는 ‘영예로운 제복상’이 제정되면서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

편집국 사회부 박훈상

## 막오른 채널A 상암동 시대... ‘A-Pride 콘텐츠’ 제작 환경 구축

채널A의 ‘상암동 시대’가 막이 올랐다. 지난 1월 제작본부 제작 1,2,3팀과 신설된 채널A B&C, 미디어텍 일부가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에 입주하면서 DDMC가 채널A의 제작센터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한 것이다.

상암동 시대 개막으로 콘텐츠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최첨단 시설과 장비들이 들어찬 DDMC에서 촬영, CG, 자막 등 모든 제작이 ‘원 스톱’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제작시간도 단축된다. 특히 제작 프로그램의 CG, 자막 등 비주얼을 담당하는 채널A B&C가 미디어텍과 함께 제작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제작 관련 부서들이 모여 있게 되면서 대내외 소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방송사들이 밀집해 있는 상암동의 지리적 특성상 방송계 소식과 트렌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윤정화 제작본부장은 “상암 이전으로 제작본부 구성원들의 사기가 한층 높아졌다”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한 발짝씩 더 움직



새로운 제작 허브로 떠오른 상암동 DDMC.

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DDMC에는 채널A 제작관련 부서 외에도 전략기획본부의 김현욱의 굿모닝A와 카톡소통, 마라톤중계 TF가 위치해 있다.

또 경영지원본부 자산관리팀이 입주해 DDMC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산관리팀은 올해 DDMC의 공용 공간을 활용해 수익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제작본부 제작1팀 김영태

#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 미래 내다본 동아 신년기획



2017년 동아일보는 자랑스러운 'A-Pride 콘텐츠'를 만들어 독자들의 마음에 한결 더 다가간다는 구상이다. 동아일보 편집국은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내다본 신년기획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편집국 기자들로부터 신년기획의 취지와 취재후기를 들어봤다.

### 공정사회 이끄는 '기회의 문' 시리즈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해."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철부지 같은 말 한 마디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때마침 편집국 경제부는 1997년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신년기획 아이디어를 준비 중이었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쌓여온 한국 사회의 적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란 진단을 했다. 적폐의 원인은 공정경쟁의 룰이 뿌리부터 흔들린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아졌다. 방향이 정해지자 특별취재팀은 영거



스 디턴, 로버트 퍼트남 등 기회의 문을 연구했던 글로벌 석학들의 저서와 국내의 논문을 샅샅이 뒤지며 각종 통계와 수치를 찾았다. 특히 이번 신년기획은 기획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

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작업을 벌여 기획의 품격을 높였다. 지난해 11월 초부터 특별취재팀은 김준경 KDI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박사들과 세종 KDI에서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

양측이 의기투합했지만 때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기획이 난항에 빠지기도 했다. 이번 신년기획의 설문조사는 KDI가 "1964년 12월 동아일보의 설문조사가 인상적이나 이를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특별취재팀은 "같은 내용의 설문을 다시 한번 실시해 52년이란 세월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비교해보자"며 설문문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2개월의 준비 끝에 1월 2일자 톱기사로 시작한 시리즈는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왔다. 1부의 호평에 힘입어 현재 경제부는 '기회의 문 2부' 시리즈를 준비 중이다.

### 미래 대비 미중몰이 된 '4차 산업혁명' 기획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을 자국에 안착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국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 나라들을 조명해 한국 사회의 자양분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4차 산

업혁명 최전선을 가다'를 기획했다.

특별취재팀은 4차 산업혁명을 모범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덴마크,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을 취재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출장 기간이 현지 관계자들의 연말 휴가 시즌과 겹쳤지만 특별취재팀은 수차례에 걸친 e메일과 전화로 하나씩 섭외를 해나갔다.

특별취재팀은 국내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데 취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SK경제경영연구소는 신년기획 1회에 소개된 에스토니아의 코딩 교육 정책 총괄 기관 HITSA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신년기획 3회에 소개된 아일랜드 기사를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읽고 회의 시간에 토론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바뀔 나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동아일보 신년기획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있어 미중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편집국 경제부 이상훈·산업부 신수정

## "인턴 기회의 문 활짝" 청년드림센터 앱 공개

청년드림센터가 1월18일 모바일 세상으로 들어갔다. 국내 최초의 청년 인턴 전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청년드림 인턴UP'을 선보인 것이다.

인턴UP은 신문 콘텐츠와 모바일 채널의 경계를 허물고 청년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A-Pride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올해 편집국 연중 시리즈인 '기회의 문을 넓히자'는 주제와도 연결된다.

'인턴UP'은 청년들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인턴 공고 외에 인턴생활의 팁을 제공하는 '인턴 가이드'와 이용자들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인턴생활백서' 게시판을 통해 청년들이 묻고 답하는 양방향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청년드림센터는 '인턴UP' 첫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대학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직무 체험 인턴 희망자 1000명을 선별해 기업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고용부가 제정한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현장·휴일·야간 근무 못하게 막는 내용)을 적용하고 대상도 대학 2,3학년생으로 제한했다. 취업용



청년 인턴 전문 모바일 앱 '청년드림 인턴UP'의 화면.

'스펙 쌓기'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생 인턴 패러다임을 진로 탐색을 위한 조기 직무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

동아일보-채널A가 주최하는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와 연계해 창농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할 것이다. 신연수 청년드림센터장은 "2012년 설립된 청년드림센터는 올해를 '모바일 원년'으로 삼고 인턴UP을 통해 청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드림센터 청년일자리팀 강재혁

## 東友는 **인턴**이다

### 전신 건강 지켜주는 발 지압법

발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는 신체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압력을 받고 심장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혈액 순환 장애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편안한 신발 선택, 발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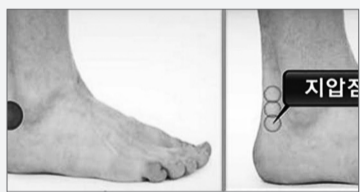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불편한 신발을 자주 신는 사람은 발 지압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 지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 지압을 할 때는 우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한 뒤 발 지압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을 지압할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면 지압횟수를 줄이고 강도를 낮춰서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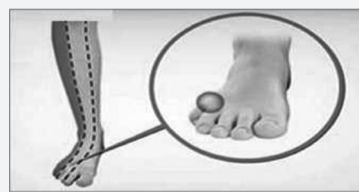
동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한 운동법을 익히려면 동영상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활용하면 됩니다.

전략기획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오지원

#### 1. 발목 교정 지압법



#### 2. 무릎통증 완화 지압법



# “입사 순간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 동아일보-채널A 신입 입사자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 ② 최종학교
- ③ 입사 후 포부, 꿈
- ④ 요즘 관심사



**고재웅**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89년  
② 연세대 경영학과  
③ 동아미디어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한 분야에 빠르게 적응하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④ 광화문에서 유명한 장소들과 음식점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한 곳씩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심우혁**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94년  
② 동양미래대 기계공학과  
③ 건물 내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고객만족 시설관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1년 내내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각종 어학,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중입니다. 제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안병호**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87년  
② 서강대 경영학과/세무사  
③ 동아미디어그룹의 회계, 세무 이슈 전문가가 돼 복잡한 세금문제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아미디어그룹의 재무총괄 책임자가 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④ 첫 월급을 타고나서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 하루빨리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원이 되는 것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태훈**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88년  
② 인하공전 전기정보과  
③ 항상 기초에 충실하고 목표한 것을 꼭 달성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원이 될 것입니다. 처음의 열정, 초심을 잃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④ 시설관리에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기술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윤종만**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87년  
② 경북대 산업디자인학  
③ 빠르게 적응해 3년 후에는 회사 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배우려는 성실함,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저를 성장시키겠습니다.  
④ 이사한 집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지 고민 중입니다. 현관의 바닥 타일을 어떤 디자인으로 교체할지 분위기는 어떻게 꾸밀지 구상중입니다.



**추선엽**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90년  
② 국민대 전자공학  
③ 전기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배님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④ 새해 계획으로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헬스를 등록했고 멋진 몸을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심승미**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96년  
② 배화여자대학교 비서행정과  
③ 동아일보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의 태도를 본받아 단순히 비서가 되는 것을 넘어 동아일보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파트너로서 성장하겠습니다.  
④ 모든 것이 새로운 지금 제가 맡은 업무와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싶습니다.



**이은채** /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① 1995년  
② 송의여자대 비서행정학과  
③ 항상 초심으로 임원들께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들과 동료들과도 화합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입사기회를 준 동아일보 사에게 감사합니다.  
④ 주말마다 강아지 두 마리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며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강지혜** / 채널A  
보도본부

① 1988년  
② 이화여자대 언론정보학  
③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④ 올해 첫 날 생강청을 담갔습니다. 주전자에 몽근히 끓여 마시니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꿀을 더하면 달달하기까지 합니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



**김예지** / 채널A  
보도본부

① 1988년  
② 이화여자대 언론정보학  
③ 굴러온 돌이 아닌, 새로운 동아DNA로 동아미디어그룹에 스며들겠습니다.  
④ "가가거고고고기." 난생 처음하는 발음 연습에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방송기자로서의 매끄러운 변신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유미** / 채널A  
보도본부

① 1987년  
② 경북대 생물학/신문방송학  
③ 기사로 원칙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④ 올해는 비키니를 입을 수 있을까요? 2017년 들어 세운 신년계획 중 첫 번째는 다 이어트입니다.



**정용진** / 채널A  
보도본부

① 1978년  
② 경남대 법학  
③ 반짝 뜨고 지는 베스트셀러보다 독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는 기자계의 스테디셀러가 되겠습니다.  
④ 결혼 생활 6년차! 이제는 나도 아빠가 되고 싶다. 올해는 반드시 꼭...



**최선** / 채널A  
보도본부

① 1985년  
②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③ 기자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일과 조직에 빨리 적응하겠습니다.  
④ 결혼 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혜지**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1996년  
② 용인송담대 비서경영과  
③ 들리는 말 속에서 들리지 않는 말을 듣고, 보이는 말 속에서 숨겨진 말을 듣는 비서가 되겠습니다!  
④ 새로운 취미로 필사를 시작했는데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아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진진석**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1979년  
② 수원대 전기공학  
③ 상하직급을 떠나 부서원이 어려운 업무상황이 닥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④ 무력무력 커가는 딸이 때문에 올해에는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 法律 콕콕

**Q**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방송패널이 한 개인적인 발언에 대해 방송사는 법적 책임이 없나요?

**A**  
개인적 발언이라도 방송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패널들에게 발언에 주의할 것을 주지시키고, 방송도중에는 진행자가 적절히 문제발언을 제지해야 합니다. 또 문제발언을 자막으로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꽤도난다, 이슈투데이 등 채널A 프로그램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패널들이 출연해 토크형식으로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송이 많습니다. 전부 생방송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제작진이 생각하지 못한 패널들의 돌발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특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한 후 뉴스특급은 변호사, 전직 의원을 패널로 초대했습니다. 생방송 도중 전

직 의원이 성남시장에 대해 돌발적인 명예훼손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성남시장이 채널A와 전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전직 의원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채널A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채널A가 패널의 돌발발언을 알기 어려웠고 진행자가 전직 의원의 발언을 중간에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의원의 발언이 자막으로 표현되지 않

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패널의 돌발발언에 방송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방송사가 출연자의 발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주의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생방송에서 패널의 돌발적인 문제발언을 사전에 방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적 논란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상진

## 동아일보 '정호성 녹취파일' 이달의 기자상



1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 참석한 수상자들. 왼쪽부터 편집국 사회부 신나리, 장관석, 배석준, 김준일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이 '정호성 녹취 파일과 유출 기밀 문건 추적' 보도로 제 31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1부문을 수상했다. 취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

순실 씨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 28분 34초 분량 12건의 전문을 확인해 최 씨가 대통령의 공식 일정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시간을 정한 사실을 보도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승민